시온장로교회
Korean Zion Presbyterian Church

수요말씀묵상교재 (2020년 7월 22일)

진행순서 : 기도 ➔ 찬송 ➔ 성경봉독 ➔ 말씀묵상 ➔ 은혜묵상 ➔ 개인/ 합심기도 ➔ 주님기도

- **기도하기** –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.
- **찬송가** – 28장(신, 28장), 403장(신, 303장)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.
- **성경봉독** – 시편 67편 1~7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.
- **말씀 묵상 (*복된 두려움*)**
  1. 본 시편은 추수 때 부르며 듣는 시편으로 여겨집니다. 복된 추수 때,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, 결국, 하나님을 힘있게 인정하는 자리에 서도록 격려하는 시편입니다.
  2. 본문에는 두 번의 "셀라"가 나옵니다. 목소리를 높이며 강조하는 것이 "셀라"의 의미입니다. 셀라를 중심으로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. 첫 번째 셀라는 1절에 있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(하나님 백성)에게 비추신다는 것입니다. 원래의 의미는 "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, 복을 주시고 얼굴 빛을 비춰주십시오"라고 간구 또는 요청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될 때에, 온 세상이 하나님의 도 곧,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,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(2절).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,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(3절). 이 3절은 5절에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, 시편기자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
  3. 4절은 원래 열방 곧,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로서, 1절의 표현방법과 같은 것입니다.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근거로,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(판단)과 다스리심(치리)이 이 세상 속에 있음을 언급합니다. 즉,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자와 통치자가 되어주심으로써, 온 세상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 주시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. 그 부분에 강조를 담아서 다시 한 번 "셀라"를 외칩니다. 추수 때가 되었을 때, 하나님의 공평하신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건 동일하게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. 하나님을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"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"(마 5:45) 내리셔서,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. 그래서, 이 추수를 통해서, 풍성함을 알고,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곧, 인정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(7절). 동시에,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지요.
  4. 풍성함 속에서, 소위 복된 자리에서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. 우리의 수고를 자축하고 칭찬하거나,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으며, 그 추수를 시작부터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요. 본문은 그것을 "두려움" 곧, "경외"라고 표현하면서, 그 자리에 서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. **<u>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닌,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"복"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</u>**
- **은혜 묵상**
  1. 세상에 사는 누구나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인 "추수"는 우리에게 양갈래 생각을 줍니다. 내가 노력하고 운이 좋아 이룬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. 전자는 자축(축하)하고 성실이 모든 것이라고 믿는데 그치지만, 후자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, 더욱더 하나님을 "경외"(인정)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. **<u>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?</u>**
  2.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"복된 두려움" 곧,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다시 한 번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합시다!
- **기도하기** –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, 천천히 기도하신 후,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.